

##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장재원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Rosenberg 자존감 척도 (Self-Esteem Scale)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존감은 심리학적 문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며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다.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자존감의 측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자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자존감의 수준과 자존감의 안정성이 서로 다른 발달적 과정을 가지는 구성개념이며, 자존감의 안정성은 여러 정신질환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자기보고식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상황에 걸친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 기초하여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SSES)’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에 미치는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증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의 안정성, 자존감, 척도 개발, 타당화, 증분타당도

\* 본 논문은 장재원(2009)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신희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2747, E-mail : hcshin@ajou.ac.kr

자존감은 심리학적 문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Rhodewalt & Tragakis, 2003). 지난 40년간의 문헌에서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논문만도 6500개가 넘으며, 또한 ‘self’ 라는 용어를 제목에 사용한 30000개 이상의 논문 중 대다수가 자존감과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Rosenberg, Schoenbach, Schooler, & Rosenberg, 1995).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담자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우울하였고(Block, Gjerde, & Block, 1991; Reinherz & Giaconia, 1993;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hisman & Kwon, 1993)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Owens, 1994;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등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와 관련이 있었던 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포함해(Bachman & O'Malley, 1977; Elliott, 1996; Judge & Bono, 2001; Mortimer, Finch, & Kumba, 1982),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Hendrick, Hendrick, & Adler, 1988;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Murray, Holmes, & Griffin, 2000; Neyer & Asendorpf, 2001),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고(Campbell, 1981; DeNeve & Cooper, 1998; Diener & Diener, 1995; Fordyce, 1988; Wilson, 1967), 동료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고 (Paulhus, 1998; Robins, Hendin, & Trzesniewski, 2001), 학업성취가 뛰어나며(Hansford & Hattie, 1982; Liu, Kaplan, & Risser, 1992; Rubin, 1978), 실패에 직면해도 잘 견디는(Cruz-Perez, 1973;

McFarlin, Baumeister, & Blascovich, 1984; Shrauger & Sorman, 1977) 등의 수많은 좋은 결과와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자존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삶의 질,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된 느낌으로 간주된다. 위의 일련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자존감은 그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높은 자존감’ 즉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좋은’ 존재로써 존중 받고,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낮은 자존감’ 즉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쁜’ 존재로써 경멸하고, 멸시하며, 가련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구분되어 왔다(Kernis, 2003).

하지만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학교 상황에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 중에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학업이나 학교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노화, 우울, 상실 등과 자존감 높낮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Brandstadter, 1994). 한편으로는, 주변사람의 피드백이나 사회적 평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자존감이 상태적인 요소인가 특질적인 요소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Leary & Baumeister 2000; Heatherton and Polivy 1991; Rosenberg 1965).

또 하나의 주된 논의는 자존감의 안정성에 관한 측면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자존감을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안정된 특성으로 가정해 왔다(Harter, 1998; Rosenberg, 1965). 그러나 Conley(1984)는 성격의 안정성에

대한 리뷰를 통해 자존감은 긴 기간 동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개인차 특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존감을 개인의 발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존감의 수준과 자존감의 안정성은 서로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일생동안 자존감의 수준의 변화와 자존감의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본 두 편의 논문(Robins & Trzesniewski, 2005; 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은 메타분석을 통해 자존감의 수준은 아동기에 높았다가 청소년기 동안 낮아지며 성인기에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노년기에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을 보이는 반면, 자존감의 안정성은 아동기에는 낮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성인기 후반(50세 이후)부터 다시 낮아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존감의 안정성이 자존감의 수준에 의해 부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발달 과정을 가지는 요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존감의 안정성을 단순히 자존감의 측정오차나 속성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다른 변인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ernis와 그의 동료들(Kernis, 2000; Kernis, 2005; Kernis, Cornell, Chien-Ru, Berry, & Harlow, 1993)은 자존감의 일일 변동 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일매일 개인의 자존감이 변동하는 정도가 자존감 수준의 전반적인 평균과는 독립적으로 미래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변인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자존감의 안정성을 사람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변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자존감의 안정성은 자존감의 수준과 우울의 상관관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며(De

Man, Gutierrez, & Sterk, 2001) 자존감의 수준은 예측하지 못했던 6개월 이후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다(Franck & De Raedt, 2007). 또한 양극성장애 환자의 경우 자존감의 안정성은 증상이 진정상태에 있을 때도 정상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극성장애의 발병위험이 있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Knowles et al., 2007). 그 외에도 자존감의 안정성은 분열, 편집증, 자살사고, 나르시즘 등 중요한 병리적 증상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De Man & Gutierrez, 2002; Myers & Zeigler-Hill, 2008; Thewissen, Bentall, Lecomte, van Os, & Myin-Germeys, 2008; Zeigler-Hill, 2006).

이처럼 자존감의 수준으로만 자존감을 구분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자존감의 다양한 측면에 보다 주목하고 연구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자존감의 안정성이 인간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자존감의 안정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만 존재할 뿐 자존감의 수준과 자존감의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 정립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Kernis (2003)는 review논문에서 진실한 자존감에 대해 논하면서, 높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성과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성에 대해 여러 연구와 실험들은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경우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긍정적 자기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가장하며, 자존감이 주위의 환경적 여건에 의존적이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자기가치에 대한 느낌이 변하는 사람들

로 표현하였으며, 자존감이 높고도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평가에 관계 없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주위의 환경적 여건에 자존감의 기반을 두지 않고,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자기가치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하여, Kernis(2003)가 제시하고 있는 자존감의 안정성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과 문헌(Kernis, 2000; Kernis, 2005; Kernis, Cornell, Chien-Ru, Berry, & Harlow, 1993;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Zeigler-Hill, 2006; De Man & Gutierrez, 2002; Myers & Zeigler-Hill, 2008)을 종합하여 자존감의 안정성을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자존감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의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외부의 평가나, 환경적 변화에 의해 그가 가진 자존감이 적게 변화하며, 또한 자신의 기분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거나 우울해지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자존감의 안정성이 자존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개념임이 인식되어 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외에 잘 타당화 된 자기보고식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Dykman(1998)이 개발한 Labile Self-Esteem Scale과 Kernis(2003)가 개발한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이 있다.

우선 Labile Self-Esteem Scale의 경우 Dykman

(1998)이 우울의 인지적 요인과 동기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수적으로 개발한 척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자존감은 빠르게 변한다.’, ‘내 자신에 대한 느낌이 날마다 거의 변함없이 유지된다.’, ‘나는 종종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가도 곧이어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와 같이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지니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Dykman(1998)의 연구에서 개발된 Labile Self-Esteem Scale은 적절한 척도 개발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단지 연구자가 판단한 안면타당도만을 가지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구성타당도나 준거관련 타당도 등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Kernis(2003)가 개발한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의 경우 현재 연구자들이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5일간 하루에 2번씩 10차례의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하고 10회의 걸친 측정의 표준편차로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측정은 자존감의 안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측정(5일)이기에 개인의 일시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자존감의 안정성을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문항에 기초하여 개인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고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여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병리를 예측함에 있어서 Rosenberg Self-Esteem Scale가 설명하지 못하는 변량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존감 안정성 척도’가 추가적으로 예측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1과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위한 표본 2가 필요 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1 집단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총 233명의 대학생이었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35명 여학생이 98명이었으며, 1학년 47명, 2학년 77명, 3학년 57명, 4학년 51명이었다. 표본 1의 나이는 18세에서 2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1.44세( $SD = 2.484$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2 집단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총 216명의 대학생이었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14명 여학생이 102명이었으며, 1학년 29명, 2학년 74명, 3학년 58명, 4학년 55명이었다. 표본 2의 나이는 18세에서 29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1.57세( $SD = 2.429$ )였다. 표본 2에 속한 학생들은 1차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를 실시한 뒤 다음날부터 5일간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을 측정 하였으며, 그 다음날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간이정신진단척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증분타당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장

기간의 측정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에 한해 추첨을 하여 1등 10만원(1명), 2등 3만원(1명), 3등 2만원(1명), 4등 1만원(5명)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 측정도구

#### 자존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변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에서는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90이었다.

#### 자존감의 불안정성(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Self-esteem Instability의 측정을 위해 Kernis 등(1989)이 사용한 절차에 따라 5일간 오전과 오후 10차례에 걸쳐 Rosenberg Self-Esteem Scale로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하고, 10회의 걸친 측정 시 마다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완성한 순간 자신의 느낌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0=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9=매우 그렇다’까지 10개의 점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적어도 6번 이상 측정한 참가자의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자존감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존감이 불안정함을 나타낸다.

#### 간이정신진단(SCL-47)

이 검사는 Derogatis(1973)에 의해 개발된 것

으로 김광일, 원호택 등(1984)이 표준화를 하였다. 이 검사는 8개 증상 차원에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8개의 증상 차원은 각각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이다. 피험자는 검사일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0에서 4점의 척도에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CL-90을 이훈구(1986)가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47문항으로 구성된 간이 정신진단 검사를 사용하였다. 박동혁(2001)의 연구에서는 .86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도를 보였다.

####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Kernis(2003)가 제시하고 있는 자존감의 안정성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과 문헌을 종합하여 자존감의 안정성을 ‘개인의 자존감이 자기 외부의 관계적, 환경적 변화나 내부의 정서적 변화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들을 예비문항으로 개발 하였다. 또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각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문항 수준에서 추출하였다. 이러한 예비문항의 추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존감의 안정성이 낮은 사람의 특징인 ‘시간과 상황에 따라 자기 가치

에 대한 느낌이 변하는 사람’(Kernis, 2003)을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에 반영하기 위해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9번 문항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라는 문항을 ‘나는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금방 괜찮아 진다.’로 변형하여 추출하였으며,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2번 문항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쉽게 그 생각이 변한다.’로 변형하여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문항이 자존감의 수준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 수준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인 ‘주변의 평가에 관계없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김’을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에 반영하기 위해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1번 문항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로 변형하여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예비문항으로 추출하였다. 그 외에도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자존감의 안정성이 낮은 사람의 특징들과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문항수준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예비 문항들을 추출하였고, ‘나는 기분이 급격히 나빠지곤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한다’, ‘나의 자존감은 주위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한다.’와 같이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고 낮음을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도 예비문항 추출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76개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문항들은 자존감의 안정성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심리학 교수 5인 및 박사 과정의 전문가 3인이 각 문항이 자존감의 안정성 측정에 적합한지를 1~5점으로 평정하였다. 이는 추출된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절차로써 자존감의 안정성의 개념과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내용으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 결과 평균 3.5점 이하의 문항들을 제외하고 48개의 문항이 1차로 추출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48개의 문항으로 대학원생 31명에게 pilot test를 실시하여 문항 간 상관성이 너무 높거나, 연구자들의 판단 하에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나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와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두 문장의 경우 문항 간 상관도 .9 이상으로 높고 의미도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은 제거되

었다. 이러한 문항 개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요인분석에 앞서 Bartlett test로 구형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 $\chi^2=731.58, p<0.001$ )로 유의미 하였으며, KMO 값은 .893으로 .60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였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자료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25개 문항에 대해 주축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5개가 나왔으나, scree plot과 구성 개념에 따라 1요인이 적합하다고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요인이 1요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요인을 회전시키지 않고 분석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낮은 요인부터 차례로 제거하여 나갔으며, 최초 25개 문항 모두가 .4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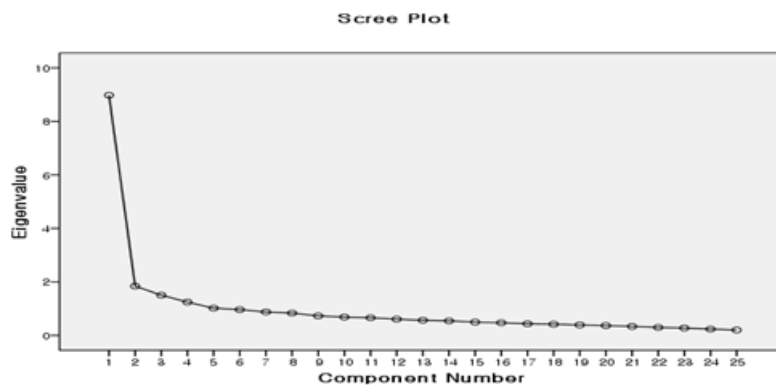


그림 1. 25개 문항에 대한 Scree Plot.

표 1.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추출된 25문항과 최종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항	요인 부하량	
		최초	최종
19.	나는 내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금방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714	.740
10.	내가 생각하는 나의가치는 자주 변화한다.	.691	.756
17.	나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에 언제든 변할 수 있다.	.691	.694
20.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673	.725
8.	나의 자존감은 주위환경에 의해 쉽게 변한다.	.653	.689
13.	나의 자존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647	.690
23.	어떤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내 생각을 크게 변화 시킬 것이다.	.624	.647
21.	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이 대단해 보인다.	.554	.559
22.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때는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을 때이다.	.549	
3.	내가 칭찬을 받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내가 꾸중을 들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540	.561
16.	나는 나에 대한사람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532	.579
14.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금방 성공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곤 한다.	.529	
15.	나의 성공여부에 따라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516	
7.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스스로의 만족감 보다는 타인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514	
9.	내가 생각하는 나의가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크게 변화한다.	.497	
12.	성공과 실패에 따라 나의 가치는 변화한다.	.495	
1.	성공했을 때 나의 가치는 높아지고 실패했을 때 내 가치는 낮아진다.	.491	
6.	나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	.488	
4.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에만 나의 가치는 높아진다.	.483	
11.	나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482	
2.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쉽게 그 생각이 변한다.	.472	
24.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471	
18.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지만 실패를 했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471	
5.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나의 가치는 일정하다.	.463	
25.	나는 어느 순간기분이 좋다가도 다음 순간 기분이 나빠진다.	.443	

주. n=230, 최종 1요인의 eigenvalue=4.458



이고 있어 모든 문항이 구성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급적 문항수를 줄여 측정의 간편하게 하고, 설명변량을 높이면서도, 좋은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10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이 경우 요인의 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도 1개의 요인으로 모든 문항이 묶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에 의한 설명 변량은 44.579%이었으며, 내적합치도는 .86이었다. 표 1은 최초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및 요인수와 내적합치도, 요인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10개의 문항의 내용과 요인부하량을 보여 준다.

####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신뢰도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척도의 Chronabach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92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1주일 후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나 본 척도가 시간에 따라 만족할 만한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인적 요인분석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6.0.1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표본 집단에 대한 검사에서도 요인구조가 안정적인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를 교차타당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홍세희(2000)에 의해 바람직한 지수로 추천된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모형을 평가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TLI와 CFI의 값은 .9이상 일 때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고, RMSEA값은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TLI와 CFI에서는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에서는 보통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모형의 자유도가 낮은 경우 RMSEA는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으므로 TLI와 CFI값을 더 중요하게 해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홍세희, 2000), 본 척도의 요인구조는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 수렴타당도

표 3은 자존감 관련 척도 간 상관을 보여준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와는 0.516의 상관을,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과는 -0.283의 상관을 보였으며 모두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자존

표 2.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모형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자존감 안정성 척도	95.632	35	.915	.946	.092 (.070 - .114)

표 3. 자존감 관련 척도간 상관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자존감 안정성 척도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Rosenberg Self-Esteem Scale	1.000		
자존감 안정성 척도	0.516***	1.000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0.053	-0.283***	1.000

주. \*\*\* $p < .001$ , \*\*  $p < .01$ , \*  $p < .05$

감 안정성 척도는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존의 직접적인 측정방식의 척도인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안정되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를 자존감의 안정성척도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5일간 10차례 측정된 자존감의 표준편차를 독립변인으로 자존감의 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안정성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보였으며, 총 216명중 결측치가 있어 표준편차를 구할 수 없었던 6명을 제외한 21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낮은 상위 1/3을 ‘안정성 고’ 집단으로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낮은 하위 1/3을 ‘안정성 하’ 집단으로 나머지를 ‘안정성 중’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일간 측정된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낮은 집단, 즉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는 33.34로 나타났고, 자존감의 표준편차가 높은 집단, 즉 자존감의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는 27.78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가 직접 측정된 자존감의 안정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 고’ 집단과 ‘안정성 중’ 집단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에

표 4. 실제 자존감의 안정성에 대한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반영정도

5일간 자존감의 안정성	자존감의 표준편차 범위	n	평균	표준 편차	F	p
안정성 고	.42이상 ~ 1.76미만	70	33.34 <sup>a</sup>	7.39	9.107***	.000
안정성 중	1.76이상 ~ 2.67미만	70	31.47 <sup>b</sup>	7.77		
안정성 하	2.67이상 ~ 7.46미만	70	27.78 <sup>ab</sup>	8.33		
전체	.42이상 ~ 7.46미만	210	30.86	8.14		

주 1. \*\*\* $p < .001$ , \*\*  $p < .01$ , \*  $p < .05$

주 2. 사후검증 : scheffe / group **a** =  $p < .001$ , group **b** =  $p < .05$

정성 하' 집단 간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안정성 중'집단과 '안정성 하'집단 간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의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는 자존감의 안정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주고 있음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안정성 고 집단과 안정성 중 집단의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증분 타당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 자존감의 수준은 인간의 심리적 기제나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1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 학년)과 2단계에서 자존감의 수준을 partial out한 뒤 자존감 안정성 척도가 얼마만큼의 증분 설명량을 가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강박증( $\Delta R^2 = .09$ ,

표 5. 정신질환 및 심리기제에 대한 LSEs와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척도	$R^2$	$\Delta R^2$	$\Delta F$	$\beta$
신체화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133	0.075	17.173	-.281***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133	0.111	0	-0.008
강박증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231	0.17	43.66	-.422***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321	0.09	26.028	-.338***
대인예민증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267	0.175	47.305	-.429***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338	0.071	20.984	-.300***
우울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228	0.155	39.634	-.403***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283	0.055	15.152	-.265***
불안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192	0.12	29.375	-.355***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239	0.048	12.361	-.247***
적대감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165	0.099	23.569	-.323***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18	0.014	3.411	-0.135
공포불안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15	0.1	23.262	-.324***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179	0.029	6.939	-.192**
편집증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159	0.092	21.749	-.311***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219	0.061	15.333	-.278***
정신증	2	Rosenberg Self-Esteem Scale	0.227	0.172	44.032	-.425***
	3	자존감 안정성 척도	0.297	0.069	19.391	-.297***

주. \*\*\* $p < .001$ , \*\*  $p < .01$ , \*  $p < .05$

$p < .001$ ;  $\beta = -.338$ ,  $p < .001$ ), 대인예민증( $\Delta R^2 = .071$ ,  $p < .001$ ;  $\beta = -.300$ ,  $p < .001$ ), 우울( $\Delta R^2 = .055$ ,  $p < .001$ ;  $\beta = -.265$ ,  $p < .001$ ), 불안( $\Delta R^2 = .048$ ,  $p < .001$ ;  $\beta = -.247$ ,  $p < .001$ ), 공포불안( $\Delta R^2 = .029$ ,  $p < .001$ ;  $\beta = -.192$ ,  $p < .001$ ), 편집증( $\Delta R^2 = .061$ ,  $p < .001$ ;  $\beta = -.278$ ,  $p < .001$ ), 정신증( $\Delta R^2 = .069$ ,  $p < .001$ ;  $\beta = -.297$ ,  $p < .001$ )에 대해 유의미한 증분 설명량을 지님을 표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효과적인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를 통해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를 살펴봄으로써, 본 척도가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척도임을 밝혔다. 둘째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가 여러 정신질환의 예측변인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본 결과 강박증, 대인예민증, 우울, 불안,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에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유의미한 증분설명량을 지니는 것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함에 따라, 타당화 절차를 걸치지 않은 Labile Self-Esteem Scale이나, 자존감을 여러 번 측정하고 그 표준편차로 불안정성을 측정하던 기존의 자존감의 불안정성 척도를 대신하여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함으로써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하고 풍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

자존감의 수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자존감의 수준이 삶의 질, 정신건강, 직장에서의 성공, 원만한 대인관계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상담에 있어서도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상담의 목표 중 하나로 잡히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내담자의 자존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척도 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상담자들이 생각하는 자존감의 개념을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주로 Rosenberg Self-Esteem Scale)가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자존감 상승을 목표로 잡고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효과를 보고자 할 때 자존감의 수준 측면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자존감의 안정성의 상승도 고려하게 된다면 상담의 성과를 보는 데 있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평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에 있어서 청소년 시기가 발달적으로 자존감의 수준이 떨어지는 시기이기에 자존감의 수준의 변화로 프로그램이나 개인 혹은 집단상담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분명한 변화가 있음에도 자존감의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존감의 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나르시즘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는 사람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자존감이 대단히 깨지기 쉽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자존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그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 비단 나르시즘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밝혔던 여러 정신병리 증상의 치료의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도, 자존감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와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동시 사용은 상당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존의 연구들에 있어 자존감의 수준이 인간의 정신건강 및 다양한 심리적 기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자존감의 안정성은 때때로 자존감의 수준이 설명해 주는 설명력을 뛰어넘어 정신병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구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한 많은 추후 연구들이 인간의 심리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는 개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자존감의 안정성은 개인의 성장이나 심리치료 등을 통해 높아질 수 있고 심리적 외상경험 등을 통해 낮아질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구인이므로 단일 척도로써 자존감의 안정성을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존감의 안정성은 이제껏 중요시 되지 않았던 분명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며, 자존감의 수준과 더불어 진실한 자존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자존감이 높다고 측정된 사람이 일시적인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승이 측정 시점의 ‘기분 좋은 한마디’나 ‘작은 성공 경험’에 의한 아주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자존감의 수준 더불어 자존감의 안정성을 동시에 측정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서 사용된 표본은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존감 안정성 척도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된 표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 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를 통해 연령대별 자존감의 안정성 점수의 평균을 알 수 있게 되면 이른 바탕으로 개인의 심리정신적 문제가 자존감의 안정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자존감의 안정성이 정신질환을 감별해 내는 데 있어 유의미한 변별자임이 보고되고 있기에 실제로 여러 정신병리를 가지는 다양한 환자군에 대하여 일반인 집단과 자존감의 안정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정신병리중 신체화와 적대감의 경우는 자존감의 안정성 요인으로 인한 증분설명량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자존감의 안정성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둘째,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평가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가지며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나 혹은 반대의 경우 긍정적, 부정적 편파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자존감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들어갔던 ‘자주’, ‘금방’, ‘쉽게’, ‘크게’ 등의 표현은 Kernis의 방식에 비해 그 객관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생각하는 변화 정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자존감의 안정성이 지니는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존감의 안정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정확한 수치의 절대적인 변화 보다 오히려 ‘개인이 그 변화의 정도를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반응하는가’가 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셋째,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가 Rosenberg Self-Esteem Scale과의 상관이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과의 상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가 과연 그 개념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자체가 제기 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항의 추출과정에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근거로 두고 있기에 두 척도간의 상관이 .5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Rosenberg Self-Esteem Scale간의 상관역시 .5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심리적으로 다른 구인으로 볼 수 있다.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과의 다소 낮은 상관(-.28)으로 인해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타당성 측면에 있어서 의심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정신병리에 대한 자존감의 안정성 척도의 증분설명량은 본 논문에는 제시되지 않은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의 정신병리에 대

한 증분설명량의 5배 이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이 가지고 있는 측정의 어려움이나, 상황적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척도자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Rosenberg Self-Esteem Scale과 Instability of Self-Esteem Scale은 .26정도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지만(Kernis, Grannemann, & Barclay, 1992) 본 연구에서는 -.05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실험의 오차인지 문화적 차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자존감의 안정성의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존감에 대한 기존의 다문화 연구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동혁 (2001). 학습습관향상 프로그램이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7.
- 원호택, 이훈진 (1995). 편집증적 경향성, 자기 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 (pp.277-290).
- 이훈구 (1986). 내외통제성; 한국 초·중·고 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제 5집, 충북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

- 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chman, J. G., & O'Malley, P. M. (1977). Self-esteem in young men: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mpact of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6), 365-380.
- Baumeister, R.F., Smart, L., & Boden, J.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lock, J. H., Gjerde, P. F., & Block, J. H. (Writer) (1991). Personality Antecedents of Depressive Tendencies in 18-Year-Olds: A Prospective Study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26-738.
- Brandstadter, J., & Greve, W. (1994). The aging self: Stabilizing and protective processes. *Developmental Review*, 14(1), 52-80.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onley, J. J. (1984). The hierarchy of consistency: A review and model of longitudinal findings on adult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self-opin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11-26.
- Cruz-Perez, R. (1973). The effect of experimentally induced failure, self-esteem, and sex on cognitive differenti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1(1), 74-79.
- De Man, A. F., Gutierrez, B. I. B., & Sterk, N. (2001). Stability of Self-esteem as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2), 303.
- De Man, A.F., & Gutierrez, B.I.B.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with stability of self-esteem as moderator.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4(4), 235-238.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2), 197 - 229.
- Derogatis L. R. (1973). SCL-90: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 Bull*, 9(1), 13-2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ykman, B. M. (Writer) (1998).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ed Approach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39-158
- Elliott, M. (1996). Impact of work, family, and welfare receipt on women's self-esteem in young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9(1), 80-95.
- Fordyce, M. W. (1988). A review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measure: A sixty second index

-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355-382.
- Franck, E., & De Raedt, R. (2007). Self-esteem reconsidered: Unstable self-esteem outperforms level of self-esteem as vulnerability marker for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7), 1531-1541.
- Hansford, B. C., & Hattie, J. A.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achievement/performance measur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2(1), 123-142.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553-617). New York: Wiley.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895-910.
- Hendrick, S. S., Hendrick, C., & Adler, N. L. (1988). Romantic relationships: Love, satisfaction, and staying toge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980-988.
- Judge, T. A., & Bono, J. E.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 Kernis, M. H. (2000). Substitute Need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Fragile and Secure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1(4), 298.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rnis, M. H. (2005). Measuring self-esteem in context: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569-1605.
- Kernis, M. H., Cornell, D. P., Chien-Ru, S., Berry, A., & Harlow, T. (Writer)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90-120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92). Stability of self-esteem: Assessment, correlates, and excuse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60(3), 621-644.
- Knowles, R., Tai, S., Jones, S. H., Highfield, J., Morriss, R., & Bentall, R. P. (2007). Stability of self-esteem in bipolar disorder: comparisons among remitted bipolar patients, remitted unipolar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Bipolar Disorders*, 9(5), 490-495.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18-530.
- Liu, X., Kaplan, H. B., & Risser, W. (1992). Decompos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general



- self-esteem. *Youth & Society*, 24, 123-148.
- McFarlin, D. B., Baumeister, R. F., & Blascovich, J. (1984). On knowing when to quit: Task failure, self-esteem, advice, and nonproductive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52(2), 138-155.
- Mortimer, J. T., Finch, M. D., & Kumba, D. (1982). Persistence and change in development: The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4(2), 263-313.
- Murray, S. L., Holmes, J. G., & Griffin, D. W. (2000). Self-esteem and the quest for felt security: How perceived regard regulates attach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3), 478-498.
- Myers, E.M., & Zeigler-Hill, V. (2008). No shades of gray: Splitting and self-esteem inst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2), 139-145.
- Neyer, F. J., & Asendorpf, J. B. (2001). Personality-relationship transact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190-1204.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91-407.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97-1208.
- Reinherz, H. Z., & Giaconia, R. M. (1993). Psychosocial risks for major depression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6), 1155.
- Rhodewalt, F., & Tragakis, M. W. (2003).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Toward optimal studies of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66-70.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Writer)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Robins, R. W., Hendin, H. M., & Trzesniewski, K. H. (2001). Measuring global self-esteem: Construct validation of a single item measur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151-161.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Rosenberg, M., Schoenbach, C., Schooler, C., & Rosenberg, F. (Writer)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rticle], *American*

-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Rubin, R. A. (1978). Stability of self-esteem ratings and their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Psychology in the Schools*, 15(3), 430-433.
- Shrauger, J. S., & Sorman, P. B. (1977). Self-evaluations, initial success and failure, and improvement as determinants of persist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5), 784-795.
- Thewissen, V., Bentall, R. P., Lecomte, T., van Os, J., & Myin-Germeys, I. (2008). Fluctuations in self-esteem and paranoia in the context of daily lif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1), 143-153.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05-220.
- Whisman, M. A., & Kwon, P. (Writer) (1993). Life Stress and Dysphoria: The Role of Self-Esteem and Hopelessness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1054-1060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 Zeigler-Hill, V. (2006).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mplications for narcissism and self-esteem in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1), 119-143.

원 고 접 수 일 : 2010. 12.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1. 2. 1  
게 재 결 정 일 : 2011. 8. 11

## Development of Self-Esteem Stability Scale

Jaewon Jang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limitations of Rosenberg Self-Esteem Scale often used in measuring Global Self-Esteem were discussed and a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was developed and validated. Self-Esteem is one of the most common topics in many areas of psychology. Recent studies showed that, a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develops differently across lifespan. Additionally, previous research illustrated that Stability of Self-Esteem is the protective factor to many mental diseases and psychological disorders. However, no validated self-report scale is yet available to measure Stability of Self-Esteem. In the current study, a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was developed and valid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s usefulness and validity was demonstrated by convergent,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Key words* : Stability of Self-Esteem, Self-Esteem, scale development, validation, incremental validity

부 록

**Stability of Self-Esteem Scale**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래에 있는 글들을 잘 읽고 평소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자주 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 하다가 도 금방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자존감은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이 초라 하게 보이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 자 신이 대단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자존감은 주위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나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가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좌우되기에 언 제든 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칭찬을 받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 지만 내가 꾸중을 들을 때는 내 자신에 대해 부 정적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일에 실패를 하는 것은 나의 가치에 대한 내 생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역산-1, 2, 3, 4, 5, 7, 8, 9, 10